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철학의 제1원리를 알게 되었다.
 을: 진리는 불확실한 행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연과 경험의 빛으로 얻는 것이다.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데는 참된 귀납법을 사용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불확실한 지식을 배제하고 연역적 방법을 통해 확고부동한 지식을 이끌어 내려 하였으며, ㉡ 지식의 토대가 인간의 이성이라고 보았다. 반면 을은 ㉢ 이성을 배제하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 내려 하였으며, ㉣ 지식의 토대가 인간의 감각적 경험에 있다고 보았다. 한편 갑과 을은 모두 ㉤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인식적 오류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7.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우리의 도(道)는 정덕(正德)에 근거한 것이요,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배움은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위한 것이다. 정덕과 이용후생을 조화시켜야 한다.</p> <p>을: 우리의 도를 밝혀 백성을 교화시키고 인애(仁愛)의 정신을 넓혀 나가면 양인(洋人)의 것이 사라질 것이다. 올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해야 한다.</p> <p>병: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수양은 마음을 지키고[守心]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正氣]이다. 우리는 한울님의 마음을 지키고 한울님의 기운을 바르게 해야 한다.</p>
(나)	

- ① A: 서양 종교의 수용이 국난 극복에 해(害)가 됨을 간과한다.
 ② B: 서양 과학 기술의 수용 여부는 국익을 고려해 결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C: 봉건적 신분제를 철폐하여 평등한 세상을 구현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D와 F: 국난 극복을 위해 성(誠)·경(敬)·신(信)의 수양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⑤ E: 동학(東學)과 서학(西學)이 조화를 이룰 때 후천 개혁이 실현됨을 간과한다.

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자연에 적합한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을: 행복의 원리가 윤리와 반드시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이 의욕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시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① 갑: 이성보다 정념에 따른 삶을 살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
 ② 갑: 주어진 운명으로부터 벗어나야 부동심에 이를 수 있다.
 ③ 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의지는 그 자체만으로 선하다.
 ④ 을: 의무 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가 도덕적으로 무가치할 수 있다.
 ⑤ 갑과 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삶과 행복한 삶은 양립 가능하다.

9.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일심(一心)이란 무엇인가? 청정한 본래의 마음인 진여(眞如)와 선악이 섞여 있는 현실의 마음인 생멸(生滅)의 두 측면이 다름이 없기에 ‘하나’라 이름한다. 이를 일심의 법(法)이라 한다.
 을: 닻음이 깨치기 전에 있으면 참 닻음[眞修]이 아니다. 따라서 깨달음에 의지해 닻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悟後漸修]하여 공부를 이룩해야 한다.

< 보 기 >

ㄱ. 갑: 무애행(無碍行)의 실천으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ㄴ. 갑: 진여와 생멸은 일심에서 볼 때 근본이 다르지 않다.
 ㄷ. 을: 단박에 깨닫고 난 후 그릇된 자성(自性)을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ㄹ. 갑과 을: 선정(定)과 지혜(慧)를 닦으며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는 쾌락을 평가할 때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은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지 않는다.
 을: 우리의 목표가 되는 쾌락은 평정심이다. 평정심은 정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열매이다. 정의는 서로 해를 끼치거나 입지 않기 위한 협정이다. 정의로운 삶 없이는 쾌락의 삶이 없다.

< 보 기 >

ㄱ. 갑: 인간은 경험을 통해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ㄴ. 을: 인간은 정의로운 삶을 통해 마음의 평온함에 이를 수 있다.
 ㄷ. 을: 참된 쾌락을 누리려면 자연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해야 한다.
 ㄹ. 갑과 을: 은둔하는 삶보다 공적인 삶에 충실해야 행복해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신의 존재는 다섯 가지로 논증될 수 있다. 그중 첫째는 운동 변화를 통한 논증이다. 모든 움직임은 다른 것으로부터 움직여진다. 이 운동이 무한 소급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제1운동자로서 신의 존재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을: 신이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실체이다. 그리고 이 실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은 이 실체의 유한한 양태(樣態)이다.

< 보기 >
 ㄱ. 신의 섭리에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ㄴ. 신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
 ㄷ. 신이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자임을 알아야 한다.
 ㄹ. 신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유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온화는 노여움과 관련된 중용이다. 마땅히 화를 낼 만한 일에, 마땅히 화를 낼 만한 사람에게,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한 때 화를 내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온화한 사람은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이성이 명령할 것처럼 그렇게 노여워하는 사람이다.

- ① 온화가 무엇인지는 철학적 지혜에 의해서만 파악된다.
 ② 온화는 노여움의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산술적 중간이다.
 ③ 온화는 습관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덕이다.
 ④ 온화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여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⑤ 온화한 사람은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다.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성인(聖人)은 자연[天]에 비추어 본다. 자연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저것도 있고, 저것도 이것이다. 저것에도 옳다 그르다가 하나가 되고, 이것에도 옳다 그르다가 하나가 된다.
 ○성인은 자연을 살피지만 자연을 조작하지는 않는다. 본래 모습[德]을 실현하지만 본래 모습에 매달리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길[道]에서 나오기에 억지로 꺾이지 않는다.

< 보기 >
 ㄱ. 만물은 타고난 능력이 각기 다르기에 서로 우열이 있다.
 ㄴ. 무지(無知)한 삶을 살 때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ㄷ. 자연에 밝지 못하면(不明) 본래 모습대로 살아가기 어렵다.
 ㄹ. 성인은 무위(無爲)에 머물기 위해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사단과 칠정은 모두 발하는 기(氣)에 이(理)가 탄 것이다. 사단과 칠정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 본연지성은 기질을 겸하지 않고 말한 것이며, 기질지성은 도리어 본연지성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p> <p>을: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다.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따져 보지도 않고서 일률적으로 이와 기를 겸하여 선악이 있다고 여겨 분별해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p>
(나)	

- ① A: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측면의 감정임을 간과한다.
 ② A: 이는 주재성을 지니며 스스로 발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③ A: 기질지성은 이와 기를 겸한 인간의 본성임을 간과한다.
 ④ B: 기는 발하는 것이고 이는 발하는 근거가 됨을 간과한다.
 ⑤ B: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선악이 혼재되어 있음을 간과한다.

1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의 공동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일 뿐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p> <p>을: 우리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두고,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부분으로 수용한다. 이런 결합으로 형성된 공적 인격이 국가이다.</p>
(나)	

< 보기 >
 ㄱ. A: 사유 재산의 발생이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인가?
 ㄴ. B: 계급이 폐지된 공산 사회에서는 국가가 불필요한가?
 ㄷ. C: 정부는 일반 의지를 통제하는 최고의 권력 기구인가?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이상 사회에 대한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은 세 계층으로 나뉘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조화를 이룬다. 시민 중에서 수호자는 금과 은을 거래해서는 안 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유 재산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호자는 시민의 적이 될 것이다.
 을: 유토피아에서는 시민들이 공공사업에 열심히 참여하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시민은 사회로부터 잘 보호받는다. 또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것이 공동소유이므로 공공창고가 비지 않는 한 누구도 필수품 부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 ① 갑: 시민 중에서 자격을 갖춘 소수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
- ② 갑: 시민은 타고난 성향과 무관하게 국가가 정해 준 일을 해야 한다.
- ③ 을: 시민의 노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오락 활동은 금지된다.
- ④ 을: 모든 시민은 오직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시민 중 어느 누구도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17. 고대 동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자국만 사랑하고 타국을 공격하는 것은 천하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모두가 서로 차별 없이 사랑[兼愛]하도록 만들면 타국을 공격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천하의 이익이 된다.
 을: 전쟁 선포에 신중한 공화 정체와 달리, 전제 정체에서는 지배자의 즐거움을 위해 쉽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구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 ① 갑: 친소를 분별하여 타국을 대우해야 천하의 이익이 증진된다.
- ② 갑: 대국이 소국을 정복하는 것은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방법이다.
- ③ 을: 공화국은 평화를 위해 주권을 국제 연맹에 양도할 의무가 있다.
- ④ 을: 군주국은 타국의 내정에 폭력을 사용하여 간섭할 권리가 있다.
- ⑤ 갑과 을: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허용될 수 있다.

18. 중국 유교 사상가 갑, 한국 유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사람의 본성[性]은 하늘[天]로부터 부여받은 이치[理]이다.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사람은 기질의 차이에 따라 선을 행하기도 하고 불선(不善)을 행하기도 한다.
 을: 사람의 본성은 하늘이 명한 것으로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없다. 사람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 선은 공(功)이 되고 악은 죄가 된다.

- ① 갑: 사람과 동물은 모두 하늘로부터 동일한 이치를 부여받는다.
- ② 갑: 사람이 부여받은 이치는 기질에 의해 불선하게 변할 수 있다.
- ③ 을: 사람에게 욕구는 생존과 도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 ④ 을: 사람은 선이나 악을 자주적으로 택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다.
- ⑤ 갑과 을: 사람은 불선을 행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양해야 한다.

19. 다음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불황기에는 충분한 유효 수요가 확보되지 못해 기업가들은 투자를 늘리려 하지 않고, 그 결과 실업과 공황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각종 공공 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유효 수요를 늘려야 합니다.

정부의 총수요 증가 정책은 시장에서 가격 신호를 왜곡시켜 잘못된 자원 배분을 초래하고 오히려 실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의 자생적 질서 속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가격이 자유롭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



- ① 갑: 불황을 극복하려면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 ② 갑: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는 유효 수요를 필연적으로 감소시킨다.
- ③ 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기업의 국유화를 확대해야 한다.
- ④ 을: 정부는 완전 고용이 달성될 때까지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 ⑤ 갑과 을: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20.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람의 본성[性]은 선하다. 하지만 사람이 불선(不善)한 것은 재질[才]의 잘못이 아니라, 타고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미처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문의 길은 방치된 마음을 되찾는 것일 뿐이다.</p> <p>을: 사람의 본성에는 본디 예의가 없으므로 애써 배워 그것을 지녀야 한다. 만약 사람을 태어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예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성왕(聖王)의 다스림이 있는 연후에야 선하게 되는 것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보기 >

ㄱ. A: 군자와 소인은 서로 다르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ㄴ. B: 사람은 누구나 인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ㄷ. B: 예(禮)는 사람의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된 덕(德)이다.
 ㄹ. C: 백성이 본성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사회가 혼란해진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